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사랑이 넘치는 5월 가정의 달

소망부 경로잔치 · 초등부 어린이 헌신예배 등 개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교회에서는 어린이 헌신예배, 경로잔치, 학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 등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각종 풍성한 행사가 개최된다.

어린이 주일인 4일, 초등부는 어린이들이 직접 예배의 각 순서를 담당하는 ‘어린이헌신예배’로 드린다. 이 헌신예배는 어린이회에서 예배 인도와 기도, 성경봉독을 담당하며 설교는 지도 교역자인 이성득 목사가 맡는다.

오늘 찬양예배시간에는 베들레헴 찬양대원 부부들이 함께 찬양드리는 순서도 갖는다.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베들레헴찬양대가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가족 사랑을 다시 확인하려는 뜻에서 오늘 이같이 특별한 순서를 갖기로 한 것이다.

유치부에서는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를 초청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하는 예배’를 11일 드린다. 다음 주일 1부

예배와 2부예배 시간 중간인 10시 20분에서 10시 50분까지 30분간 자녀를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유치부는 자녀를 신앙 가운데 양육하기 위해 ‘기독교 교육을 위한 가훈’을 각 가



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유치부에서 마련한 교육지침팔플렛도 이 시간 나누어 줄 계획이다.

소망부에선 11일 아버지 주일을 맞아 ‘사랑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 잔치는 12시 30분부터 3층 소망부 집회실에서 갖게 되며 우리 교회 소망부 회원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친지 등 주변의 어른분들도 모두 초청하여 풍성한 먹거리잔치와 아울러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찬양예배시간엔 특별순서를 마련하여 소망부 회원들이 지난 몇 달 간 열성적으로 연습한 찬양도 선뎀다.

그리고 짝꿍을 가정으로 한 가족초청잔치가 요즘 신바람건강법으로 한창 관심을 모으는 황수관박사를 강사로 6월16일 개최될 예정이다.

“모이자! 한마음으로 잠실체육관에서”

5일(월) 10시 입장식

오랫동안 기다리며 준비해 온 제 3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가 내일 열린다.

10시 정각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전교인이 입장하여 개회예배를 드린 후 이종윤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면서 축제는 시작된다.

선두에 선 초등부 찬양대의 체조시범에 따라 온 성도가 함께 찬양에 맞춰 체조를 한 후 퇴장하여 팀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된다. 이때부터 풍선 던지며 달리기, 럭비공 굴리기 등 오전 경기가 진행되며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집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다량방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점심식사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시간에는 장외 경기로 유치 · 유년 · 초등부 어린이 전체가 참여하

는 ‘환경과수꾼’ 경기도 벌일 예정이다.

다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15분까지 오후 줄다리기 등 7가지 경기가 진행되고 주변 정리와 폐회예배를 끝으로 모든 순서는 오후 5시에 모두 마치게 된다. <4면 참고>

진행위원회에서는 온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활동하기에 편한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올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9시 30분까지는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도착해서 입장식이 10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통편 등 자세한 안내는 오늘 주보에 삽입되는 유인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당일 종합운동장 주변에 오시면 우리교회 차량부원들의 친절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순례자 컬럼 ✧

신앙의 힘

사도 베드로는 헤롯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유월절 명절이 지나면 그에게는 무슨 형벌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복음사업은 물론 자신의 일생도 낭패를 당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사에 대한 염려나 적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통과 아픔 따위에 항복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의지가 강하고 그의 품성이 강직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힘이 그를 이토록 강하고 담대한, 청사에 빛나는 인물로 만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인내케 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감사와 희망을 갖게하고 진실되게 하며 겸손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한다.

신앙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으니 바른 신앙의 힘 위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더욱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인 빌하의 몸에서,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인 실바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첩의 자식이 본부인이 낳은 아들과 같을 수는 없겠으나 그 당시엔 몸종을 첩으로 보내어 자식을 낳을 경우 그들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마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는 자기들이 아버지로부터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 어머니의 신분과 관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각각 축복을 합니다.

1. 단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16절).

단은 자신이 첩의 자식이며 종의 자식으로 도무지 대접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뒤로 물러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단에게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간주해 주었습니다.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심판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파와 동등한 것임을 말합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드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라”(17절).

뱀은 아담 이후 성경에서 부정적인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을 뱀에 비유한 것은 교활하고 잘 싸우는 특성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단 지파 가운데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20년 간 다스린 사람으로 전쟁에 능하고 힘이 세어서 사자도 찢어 죽였으며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수 천 명씩 죽인 용장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은 야곱의 예언에서 조금 벗어난 것같이 보이나 이것은 분명히 단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단을 뱀에 비유한 것은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들의 군사적 기능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뱀을 말할 때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에덴동산의 뱀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18절)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메시아와 그의 미래 사역에 자기의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실로에 대해 예언한 야곱(창49:10)은 18절에서 다시 구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Yeshua)’라고 발음되는데 이 말은 후에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와 구원하신다’, 즉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이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교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단 지파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2. 갓, 아셀, 납달리

(1) 갓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암몬과 모압의 공격을 자주 받았



단, 갓, 아셀, 납달리



이종운 목사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드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케하리로다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창 49:16 - 21)

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족속은 오히려 그 뒤를 추격했다고 했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라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대상 12:8).

갓 지파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는 위험한 지역을 스스로 선택한 용감한 족속들이었습니다(민 32장).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길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개척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우리는 갓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살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스스로없이 자기 눈에 좋아보이는 대로 소돔을 선택했다가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길이 당시에는 외로워 보이고 별로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2) 아셀

아셀의 땅은 해안에 접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비옥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에는 행복(happy, fortunat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행복했고 다른 지파에 비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풍요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는 동안 아셀은 사치와 열락에 빠졌던 것입니다(삿 5:17 - 18).

그러나 아셀 지파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기다렸고 그들 가운데 바누엘의 딸 안나(예루살렘의 여선지자, 눅 2:36)는 메시아를 대망했다고 했습니다. 84세가 된 이 여인은 홀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감사한 분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로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3) 납달리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21절).

여기서 ‘농인’이라는 말은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에 대항해서 드보라와 함께 싸운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납달리 지파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알려진 인물입니다(삿 5장).

그리스도 예수는 납달리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들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이 이 지역(갈릴리 서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 4:15 - 16). 예수님은 실제로 납달리 지역에서 설교하셨고 가나안 전국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답고 진실된 말씀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퍼져 나갔습니다.

단 지파와 같고 갓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에 붙어

이번 어린이 날에 받을 두 가지 선물



강신혜

(초등부,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피켓 걸)

올해 저는 가장 뜻 깊은 어린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구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는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에서 제가 맡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많은 어른들, 특

히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도우심 덕에 저와 많은 어린이들이 탄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월에는 갖가지 날들이 많은 가운데 ‘어린이 날’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저로서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섭섭하답니다. 선물도 많이 받고 좋은 데도 많이 많이 가고 싶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잠실실내체육관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이 뭐냐구요? 그건 바로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적힌 큰 피켓을 제가 들고 입장하는 것입니다. 이젠 제가 올해 받은 어린이 날 선물 중 첫 번째 것입니다. 제가 왜 즐거운지 이제 아시겠지요?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피켓을 들 어린이를 찾으신다는 선생님 말씀 중에는 “키 큰 6학년 여자 어린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나 미소를 띠며 사랑을 듬뿍 주시는 할아버지, 권사회 회장인 할머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멋진 아빠, 모든 일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며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예쁜 엄마, 씩씩하

고 성실한 사랑하는 오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여섯 명이랍니다. 모든 친척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기뻐진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가정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의 친구들을 보면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교회를 또다른 가정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에 모두 모여 한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피켓을 들고 들어오는지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이번 어린이 날에 받는 두 번째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어린이들을 항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들이 함께 생활을 할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어 더 많은 친구들이 잘 배우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몇 만명이 되어 잠실 체육관에 뽐뽐히 모여 힘차게 찬송하고 응원할 그날도 그려봅니다.

가정의 달 오월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



이재운(집사, 12교구)

한 학부모가 노기에 찬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자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 담임 선생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다. ... 좋은 재목으로 자라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가지치기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내 자식 귀엽다고 내버려만 두면 아무렇게나 자라서 귀한 재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학, 퇴학도 시키지 말고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엄중 문책한다고 한다. 회초리 한 대에 고소를 당하고 치료비를 주어야 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니 점점 학생들의 생활을 방관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만 간다. 물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25%가 결혼 가정에서 자란다고 한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광능수목원에 가 보니 곧고 바르게 자란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듯 빼곡히 서 있었다. “야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 수백년 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곧은 나무일수록 결가지를 수없이 잘라버려서 아래와 위의 굵기가 비슷하며 곧게 자라 있었다. 그렇다. 좋은 재

목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가지치기의 고통도 견뎌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 자식 귀엽다고 내버려만 두면 아무렇게나 자라서 귀한 재목이 될 수 없고 굵기야는 뽕감으로 아궁이 속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랑 신부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같은 존재이며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여 밤과 낮, 사계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이 두 축이 마음대로 흔들려 보라. 그 안의 생명들은 어찌 되겠는가?”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부모의 견고한 믿음이 양 축이 되어 돌아갈 때 평화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이 중심점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고 자녀는 방황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제학생의 경우만 보아도 믿음 있는 가정의 자녀는 곧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녀를 위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크고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 자녀들이 걸 길로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 온 가족이 모여 손을 꼭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땅속에 잔뜩 움츠렸던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논두렁 밑에서 개굴거리며 보리밭 곶에는 종달새가 지저귄다.

산천을 둘러보니 어느덧 질푸른 나뭇잎에는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똑 똑 떨어질 것만 같은 5월. 창 너머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라고 하며 이 아름다운 계절을 노래하고 있다.

5월은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계절이다. 그러기에 이달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달’로 지내며 갖가지 행사를 많이 열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돌아본다.나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며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곤 한다. 오늘도 한 학부모가 노기에 찬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말을 안듣는 자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 담임 선생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다.

오늘날 거리의 청소년들을 보자.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옷차림,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머리 모습, 휴지나 오물을 아무 데나 버리며 씹던 껌을 길바닥에 내뱉으며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로 대로상에서 담배를 피워댄다. 그래도 누구하나 말하는 이가 없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한 대 때렸다고 학생의 부모가 동네 어른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다. “내 자식 자유롭게 내가 귀하게 기르는데 무슨 상관이나”며...

교육부에서는 학생을 때리지도 말고 근신,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을 축제”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담당부서 및 참가인원
09:30 ~ 09:50	인원점검, 입장식 준비	팀(교구)별로 전체
10:00 ~ 10:20	선수단 입장	팀별
10:20 ~ 10:50	개회식	다함께
11:00 ~ 12:00	풍선 던지며 달리기 럭비공 굴러오기 무지개 따오기 모델처럼 걷기	유년부, 장년 · 소망부 50명 소망부, 각팀 100명 고등부, 각팀 100명 사랑부, 각팀 100명
12:30 ~ 13:30	즐거운 식사시간 어린이 환경과수꾼	교구별로 모여서 유치 · 유년 · 초등부
13:30 ~ ~ 16:15	바구니공 단체 줄넘기 아마겔돈 전쟁 공나르기 릴레이 다중축구시합 공 전달하기 줄다리기	초등부, 각팀 전원 중등부, 각팀 10-명 대학부, 각팀 200명 장년부, 각팀 60명 탁아부, 유 · 초등부 전원 새가족부, 각팀 10명 청년부, 각팀 100명
16:15 ~ 16:30	깨끗한 마음(정리)	다함께
16:30 ~ 17:00	폐회식	다함께

5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4일

어린이 주일

중등부 헌신예배, 초등부 자체 헌신예배

5일

제 3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을 축제

8일

아담반강좌 ⑦

11일

아버지 주일

학부모초청 기도회, 경로잔치

12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⑦

14일

아담반강좌 ⑧

18일

스승의 주일

19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⑧

20일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개강

22일

아담반강좌 ⑨

25일

교사대학 강좌 ⑤

25일

새가족환영회

26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⑨

28일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수료예배

29일

아담반강좌 종강

우리부서는 지금 - 대학부

조별로 나이별로

대학부의 모든 활동은 조(group)별로 운영된다. 조는 1년에 세차례,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씩 개편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조가 편성되어 대학부 전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운영되던 11개 조에서 하나가 더 늘어 12개 조가 되면서 모두들 더 열심을 품어 주님의 열 두 제자처럼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젊은이가 되기를 결심하였다.

올해 초부터 각 조에서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는 조장공부를 강화하여 매주일 찬양예배 후 조장 모임을 갖고 다음 주에 공부할 출애굽기를 미리 공부하게 된다. 조장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일주

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주일 대학부 집회의 조별공부시간에 다시 조원들과 나누게 된다. 지난 4개월 동안 말씀으로 생활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았던 대학부는 새로운 조편성과 새롭게 시작하는 조장공부를 계기로 더욱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대학부 회원들은 대부분 72 ~ 78년도 생이다. 작년 대학부 총동원 집회에서 생년별로 준

비한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끈 이래, 올해 들어서 매달 한 번씩 생년별(나이별) 발표를 갖고 있다. 이 발표회에서는 성극, 중창, 워십댄싱(worship dancing) 등이 공연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고백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 상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내용들로 장식된다.

대학부 회원들은 이 발표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래간의 교제를 나누며 대학부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학부 막내들인 78년생의 발표가 있었으며 5월엔 대학부 최고참인 72, 73년생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노애리>

■ 목회자동정 ■

* 이종운 목사는 6일(화) 연세대 총학생회 주관 순결서약식 집례.

옥답중에서의 사랑의 나눔

봉사자를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하신 이계홍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의 메뉴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짜장면!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모신 '가정천국' 을 이룰 수 있도록
2.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을 축제” 를 위해
3.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내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4.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5. 대학부의 부흥을 위해
6.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X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